

12월 교육과정 안내

1. 작은 발표회 (12월 11일 수요일)
2. 삼레 문화예술촌 역사·문화 체험학습 (12월 18일 수요일)
3. 2020학년도 다모임 선거 (전교생) (12월 26일 금요일)
4. 졸업식 및 종업식 (2020년 1월 3일)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체험하고

- 권윤슬 -

■ 줄거리 정리



우리학교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나는 두레끼리 모여서 버스를 타고 우리가 나르기로 한 집에 도착했다. 도착했는데 거기 사는 할아버지가 연탄을 다 옮기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차를 또 타고 다른 팀을 도와주러 이동했다.

차를 타고 와서 장갑, 팔토시, 마스크를 쓰고 연탄을 계속 옮겼다. 힘들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할아버지는 혼자 옮겨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연탄을 쓰시는 분들은 불편하겠다고 생각했다. 연탄 하나에 800 원 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비쌌다 그리고 엄청 많이 옮겼는데도 하루에 3개 이상이나 써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나는 그 정도 양이면 3년은 쓸 줄 알았는데 1년만 쓸 수 있다는 점에 깜짝 놀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연탄을 모두 옮겼다.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연탄 나르기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권윤슬】

『세상의 주인공』 3회

학급신문 3회는 학생들과 학교에서 함께 한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학급 작은 발표회 및 자율동아리, 119 안전체험관 활동 등으로 글을 담았습니다.

학급 작은 발표 - 연극공연



반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학급에서 연극 준비를 했다. 팀끼리 주제를 정하고 대본을

쓰는데 소현이가 다 쓴다고 했다. 고마웠는데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드디어 결전에 날이 다가왔다. 먼저 한 팀은 “흑설이와 백설이” 팀 이였다. 완전 코미디였다. 한바탕 웃고 이제는 웃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면 우리 차례였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실수를 했다 “포탈”을 “코털”로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수습을 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다른 팀 친구들이 선생님께 한번 더 하자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되었다.

결과는 두구 두구 동점 이였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두에게 젤리를 주셨다. 우리 여자 애들은 거의 과자 파티였다. 근데 마지막에 과자가 너무 많아서 남자 애들한테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했다 재미있었고 신이 났다.

【김승언】

11월에 이런 일이 . . .

평화 · 통일 프로젝트



프로젝트 팀을 나누는데 친한 친구들이랑 붙어서 좋았다.

그리고 만들 음식 고르는 것도 순조로웠다. 만들 음식인 평평이 떡 안에 가루가 하나도 반죽이 안돼 있어서 맛이 없었다. 얼마나 맛이 없으면 “파멸의 떡” 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었다. 맛이 없는 이유가 원래는 옥수수 가루를 넣어야 하는데 감자 전분을 넣어서 맛이 없었던 거 같았다.

이제는 드디어 만드는 날이다. 연습 당시에는 너무 맛없어서 떡을 부치기로 했다. 떡을 부치니 정말 맛있었다. 근데 막 엄청 맛있지는 않고 연습 했을 때 보다는 훨씬 맛있었다.

하지만 1~2학년을 다 줘야하는데 그러면 너무 많아서 다른 팀이 만든 “평평이 떡” 과 우리팀이 만든 “평평이 떡” 을 합쳐서 1~2학년을 나눠 주었다. 그리고 3~4학년도 줘야하는데 4학년이 너무 많아서 다 못줄 것 같아서 3학년과 6학년 밖에 못주었다. 4학년에게 좀 미안했다. 그리고 평평이 떡을 콩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뿌려 주어야 하는데 콩가루가 너무 맛없어서 설탕을 조금 넣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 맛없어져서 베이킹 파우더만 뿌려 주었다. 끝나고 설거지는 나와 서하가 하게 되었는데 하기는 싫었지만 우리가 설거지를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친한 친구들과 붙어서 좋았고 재밌는 일도 많이 있어서 「평화 · 통일 프로

젝트 영화제」가 제일 좋았고 너무 재미있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심나현】



이 글은 평화 · 통일 프로젝트 영화제를 하고 나서 소감을 쓴 글이다.

처음에는 북한 영화를 보면서 먹을 간식을 만들려고 한 조는 “녹두전” 을 만들고 또 다른 조는 “평평이 떡” 을 만들기로 했다. 재료가 도착해서 더 잘 만들 수 있게 먼저 연습으로 만들어 보았다. 나는 “평평이 떡” 을 만드는데 옥수수 전분이 아닌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서 먹을 때 너무 맛없어서 토할 뻔 했다. 반대로 녹두전은 정말 맛있었다. 하지만 그 중 호떡이 제일 맛있었다.

드디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이 와서 간식을 만드는데 “평평이 떡” 이 너무 맛없으니까 “평평이 떡” 이 아니라 “평평이 튀김” 으로 변경해서 만들었다. “평평이 떡” 보다는 “평평이 튀김” 이 훨씬 더 맛있었다. 하지만 “녹두전” 도 아주 맛있었는데 프로젝트 당일에도 호떡을 못 만들어서 아쉬웠다.

영화 볼 시간이 오고 3학년이랑 같이 시청각실에서 영화를 봤다. 과자 같은 거랑 혜나가 만들어준 코코아랑 같이 먹으면서 영화를 재미있게 봤다.

「평화 · 통일 프로젝트 영화제」에서 본 영화랑 간식 만들기는 정말 재미있었다. 물론 “평

평이 떡” 의 맛이 맛없어서 아쉬웠지만 맛있는 간식도 먹고 영화도 재미있게 봐서 정말 좋았다. 다음에도 「평화 · 통일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정말 좋겠다.

【김하늘】

11월에 이런 일이 . . .

태국 여행을 다녀와서



나는 한 달간 태국 치앙마이를 다녀왔다.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가는데 졸려서 자려고 했

는데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하니 밤 12시였다. 첫 번째 숙소에서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아침이 와서 호텔 조식을 먹고 호텔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두 번째 숙소로 이동했다. 두 번째 숙소에서 짐을 풀고 나가서 치앙마이를 구경했다. 볼거리가 정말 많았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사원이 정말 많았다. 숙소에서 수영장도 있어서 수영을 많이 했다. 그리고 치앙마에서 제일 큰 백화점에 가서 식용품을 샀다. 한 10일쯤 지나서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드는 데로 체험을 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더러울 줄 알았는데 거의 90%가 지푸라기인걸 알고 안심이었다. “코끼리 똥 종이” 로 노트도 만들었다. 또 25일 정도 지나서 「치앙다오」 라는 곳에 있는 「사랑해 리조트」에서 하루 밤을 자기도 했다. 거기에는 은하수가 보이는

데라서 가는 곳이었다. 「사랑해 리조트」에 도착해서 저녁인 삼겹살을 먹고 하늘을 보니 별이 정말 많이 보였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계속 별을 보다가 사장님이 온천을 간다고 했다. 온천은 옷을 입고 들어가는 탕이 있어서 별을 보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었다. 온천을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와서 별을 보다가 잤다.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다. 지난 30일이 나에게는 매우 짧게 느껴졌다.

【유하람】

11월에 이런 일이 . . .

교장선생님 진로특강



1교시가 끝나고 「교장샘 진로특강」을 들으러 시청각실에 갔다. 교장샘이 하는 진로특강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다. 맨 처음에 교장샘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슬펐다. 다음에 교장샘이 우리에게 “어떠냐?”고 물어보셨다. 다시 교장샘이 물어봤다. “이걸 보니까 슬프죠?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안하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교장샘이 한 편을 더 보여주셨다. 이번에는 학교폭력 땀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인공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 교장샘이 이번에도 슬펐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내가 너무 슬펐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교장샘이 “폭력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라고 물어봤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보이스피싱, 사이버 폭력”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2교시가 끝났다.

【김영진】

11월에 이런 일이 . . .

엔트리 수업



나는 엔트리 수업을 한다는 소리에 신났다. 매주 화요일에만 학교에서 엔트리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엔트리를 더 할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목요일에 해서 잘 하면 점심 먹고 엔트리 동아리도 이어서 할 수 있으니 총 4교시동안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엔 좀 쉬워서 그냥 들으면서 만들었는데 점점 어려워져 따라 만들기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따라 만들어 갔다. 그리고 아무도 못 만든 작품 (선생님도 컨닝할 정도)도 있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작품도 있었다. 또 한 코딩은 잘 되었는데 작동이 안 될 때도 있었다. 그래도 난 재밌었다. 몇 몇 애들은 어렵다며 하기 싫어한 친구들도 있었고, 아예 만들지 않고 게임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11월달 엔트리에 마지막 수업이 돌아왔다. 그 중엔 신나하는 애들도 있었다. 나는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컴퓨터실로 가는데 6학년이 하드웨어(현 로봇)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랑 엔트리를 하는 걸 신나하거나 좋아하는 애들은 선생님한테 저거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 선생님은 6학년 때 한다고 했다. 나는 6학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일정표에 엔트리 수업이 다음 주에 있는 걸 보고 의아해 했는데 알고보니 3-4학년 동생들이 받는 수업 이었다.

【조원택】



목요일마다 엔트리 선생님이 오시는데 목요일 3-4교시에 엔트리를 수업

을 했다.

엔트리 선생님이 일단 기초부터 알려주셨다. 일단 X좌표, Y좌표를 배웠다.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배운 뒤 쉬운 작품들을 하나 하나 만들었다. 처음에는 쉬웠다. 그렇지만 점점 난이도가 올라 갔다. 애들은 다 쉬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서 나도 쉬는 시간만 자동적으로 기다리게 됐다.

이제 중간쯤으로 가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코드들을 하나씩 이해해보니 조금씩 쉬워지는 기분이었다. 조금씩 쉬워지니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어느 날은 선생님이 내가 코드를 이해를 잘해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음료수를 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주가 왔는데 안 주셨다. 그래서 그 다다음주에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또 안주셨다. 근데 엔트리 하는 날이 끝났는데도 결국에는 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다음에 3학년 수업하는

날에 주신다고 약속해주셨다.

엔트리가 끝나고 생각해보면 솔직히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다. 그런데 점점 더 어려워지니 더욱 재미가 없었다. 재미가 없는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 되는데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코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코드가 겹쳐져서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겹치면 또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니 이해가 잘 되면서 점점 재밌어졌다. 엔트리가 귀찮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는 데 코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니 재밌어 진 다는걸 알 수 있었다.

어쨌든 엔트리는 재밌었고 음료수를 아직까지 못 받은게 제일 아쉬웠다.

【김의찬】

11월에 이런 일이 . . .

자율 동아리



엔트리 자율 동아리로 처음 시작한 날에는 너무 기대했고 흥분됐다. 친구들과 엔트리를 하며 얘기도 하고 간식도 먹었다. 이렇게 재밌고 흥분했었던 자율동아리 수업이 끝났다.

목요일마다 수업이 끝나고 1시간씩 했다. 간식은 우리끼리 먹고 싶은걸 먹고 친구들이랑 작품도 같이 만들고 팀을 나눠서 누구 조희수가 높은지 대결도 했다. 간식은 거의 햄버거로 통일되었으며 나는 불고기 버거를 매

번 먹었다. 자율동아리에는 남자 애들이 많았고 그래서 좀 시끄러웠다. 자율동아리를 가끔씩 못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 시간이 빨리 끝났기 때문이다. 다만 뭐가 허전할 뿐이다. 가끔씩 자율시간에 「닌자 큐브」라는 게임으로 누가 더 많이 가나도 했다. 나는 자율동아리 시간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센터에도 1시간 늦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자율동아리 마지막 날이다. 돌아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거 같다. 그래도 같이 엔트리도 하고 간식도 먹으며 얘기를 했다. 그리고 팀을 나눠 시험을 했지만 우리 팀이 졌다.

친구랑 같이 작품도 만들고 시험도 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다. 다음에는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자율동아리를 추천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친구끼리 간식도 먹고 같이 작품도 만들기 때문이고 제일 중요한건 진짜 재밌기 때문이다.

【임필호】



자율동아리를 하면서 많은걸 느꼈습니다.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동아리를 마쳤습니다.

자율동아리를 해봐서 좋았고 거북이를 키우며 거북이 가족이 없을 땐 슬펐지만 다시 거북이 2마리를 사서 키우면서 동아리 원들과 웃고 놀고 재밌게 보냈습니

다. 그리고 어느덧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모두에게 수조, 거북이 두 마리, 먹이, 물갈이, 모래를 사주었다. 그래서 동아리 원들이 모두가 거북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거북이를 키울 수 있도록 사육상자와 용품들을 구입해주고도 돈이 남아서 동아리 원들과 영화를 보려고 계획했는데 어린 거북이가 죽었다.

그래서 슬펐지만 전에 한 번 거북이가 죽은 경험을 해봐서 쉽게 이겨냈다. 그리고 영화를 보려 했는데 겨울왕국 2가 나온다고 해서 다음 주에 보기로 약속했다.

드디어 동아리 원들과 겨울왕국 2를 보았다. 그때 하랑이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 같다. 겨울왕국 2를 다 본 후 열기가 식지 않았다. 우리는 얘기하며 「국수나무」 식당에서 국수를 사 먹었다. 그리고 동아리 원들을 다 데려다 주었다.

이렇게 자율동아리가 끝났지만 자율동아리 친구들 모두 개인 거북이를 키운다. 자율동아리를 또 한다면 난 또 하고 싶다. 거북이가 죽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고 죽은 이유도 알게 되었다. 이유는 거북이는 뒤집히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키운 거북이도 죽은 것 같다.

자율동아리는 나에게 좋은 경험 이었다.

【정승원】

11월에 이런 일이 . . .

119 안전체험관

나는 「119 안전 체험」을 했다. 처음에는 3층짜리 건물에 미끄럼틀 같은

곳에서 내려가는 거다. 애들을 보니까 떨고 있었다. 사실 나도 떨었다. 애들은 다 내려가고 내 차례였다. 심장의 조마조마했다. “나는 번기에 있는 똥처럼 송 내려갔다.” 다음에는 안벽등반을 했다. 안벽등반은 높아서 무서웠다. 올라 갈 때는 “안전!” 이라고 외쳐야 해서 목이 아팠다. 다음은 다리를 건너는 체험이다. 재미었는데 필호가 흔들어서 기분이 나빴다. 119안전체험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다.

【힘찬민서】



11월에 119안전 체험 관에서 안전체험을 하고 왔다.

우리는 제일 위에 있는 「경사식 낙하 구조대」로 대피하는 법을 배우러 갔다.

처음엔 볼 때 엄청 무서워 보였다. 그렇게 애들이 계속 타고 내려가니까 결국 내 차례가 왔다. 나는 자세를 잡고 교관님이 “탈출” 이라고 말하시길 기다렸다. 조금 있다가 교관님이 “탈출” 이라고 말해서 나는 내려갔다. 그런데 무서움은 온데간데 없고 엄청 긴 미끄럼틀 같았다. 엄청 재미있었다.

애들이 다 내려오고 「완강기 사용법」도 배우러 갔다. 완강기

는 별로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놀토피아」에서 많이 해본 거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타고 내려갔다. 다음엔 「비행기 탈출법」을 배우러 갔다. 그것도 미끄럼틀 같았다. 다음엔 「클라이밍」을 하러 갔다. 「놀토피아」에서 많이 해서 익숙했다. 그래서 힘찬 이보다 빨리 올라갔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제일 눈에 띄는게 있었다. 의찬이를 아는 분이 있어서 의찬이와 얘기를 나누시는 모습이었고 그 분은 의찬이와 사진을 찍고 갔다.

「119 안전체험관」에 가서 유익한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재밌고 좋았다.

【멋진민서】

11월에 이런 일이 . . .

방과후 자율동아리

2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하는 댄스동아리를 했다.

나 혼자만 5학년이라서 씁쓸했다.

댄스동아리 할 때 내가 혼자 5학년이라서 씁쓸했는데 6학년 언니들이 친구처럼 도와주고 잘 챙겨줘서 고마웠다.

우리가 노래를 정하고 연습을 하는 도중에 언니들끼리 총돌이 일어나서 잠시 분위기가 쥘 죽은 듯 조용하게 있었던 적도 있었다. 언니들이 싸우고 있을 때 나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서 했는데 옆에서 어떤 언니가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게 답이야” 라고 해서 빨쭈م 하기도 하고 답답

했다. 싸움이 끝나고 규칙을 정했다 배려하면서 지내자는 규칙이었는데 동아리가 끝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봤다. 과연 싸움이 났을 때 “왜 싸웠는지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게 답일까?” 라는 주제로 하루 동안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동아리 시간이 또 돌아왔다. 언니들이 우리가 정한 두 가지 말고 하나 더 하자고 해서 좀 버겁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안무를 외우는데 시간 안에 3가지를 다 못 외울 것 같아서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루만에 3가지 중 새로운 안무를 다 외울 수 있었다. 그 다음날 언니들이랑 대형도 맞춰보면서 생각했다. ‘5학년이 나 혼자여서 더 편한 것 같다고...’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안무 숙지 능력도 늘고 언니들이랑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동아리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된 것 같다.

【주시연】

11월에 이런 일이 . . .

학급 연극공연

우리반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국어시간에 연극 발표를 준비했다. 대본,

소품 준비 등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거라서 좀 떨렸지만 3일의 시간동안 매일 점심시간에 열심히 준비했다.

우리팀은 어찌어찌 하다가 다수결로 「백설공주」를하기로 정했다. 선생님이 각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주어서 우리도 해보게 되었는데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으나 재밌어서 됐다. 점심시간에는 남자애들도 다 모아서 대본 연습을 하고 학교가 끝난 후엔 서하랑 시언이랑 대본도 같이 짜고 열심히 했다.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팀에서 트러블이 생겼다. 애들이 서하한테 대본을 맡겼고 남자애들이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들은 “여자애들이 지금 대본완성 안 됐으니까 우리가 완성하고 보여줄게. 대신 니네 축구하니까 나중에 탄말하지 않기!” 해서 좀 오글 거리는 대사를 넣었다. 근데 이따가 남자애들이 이걸 절대로 못 하겠다고 해서 조금 바꿨다. 근데도 불구하고 남자애들 몇 명이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장난쳐서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나 나중에 선생님하고 팀 애들이랑 이야기해서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연극 발표날이다. 아침부터 마음뒀음방에 소품을 다 올려놓고 리허설도 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으니 실전이었고 애들이 모두 잘해주어서 고맙다.

3일 동안 최선을 다해 연습한 거에 비하면 너무 빨리 끝나버린 것 같아 아쉬웠다. 그리고 과정 중에 좀 다툼이 있었으나 다 잘해줘서 친구들에게 고맙다.

【박지은】

11월에 이런 일이 . . . 자율동아리



나는 동아리를 캘리그래피로 들어갔다. 난 처음에 캘리를 진짜 못 썼는데 선생님이 “못 쓰는게 아니라고 개성 있다”고 칭찬을 해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동아리 때 어려웠던 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선생님이 착하셔서 더욱 힘든점이 없었던 것 같다. 내가 글씨 위치를 잘못 잡았을 때 글씨 위치를 잡아주시고 작품을 쓰고 꾸밀 때도 내가 못하고 있으면 꾸밀 아이디어도 주시고 작품 할 때 글씨가 틀려도 바로잡아 이쁘게 도와주신다. 그리고 연습할 때 한명씩 돌아 봐주시면서 “글씨체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조언을 많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신다. 그럴 때 마다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동아리 마지막 날에는 족자에다 캘리를 쓰고 또 파티도 했다.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었다. 정말 재밌었다. 다음에도 캘리 쌤하고 또 수업하고 싶다.

【여소현】

10월에 이런 일이 . . .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처음에 연탄 봉사 하는지 모르고 학교에 왔는데 연탄봉사를 한다고 해서 너무 싫었지만 하고 나면 연탄

인형을 준다고 해서 한편으론 좋았다. 봉사하는 팀을 짤 때 두레로 팀을 나누었는데 친한 친구가 없어서 더 하기 싫었다.

연탄봉사 하는데 도착해서 비닐 장갑과 목장갑을 쓰고 앞치마와 팔토시까지 한 다음에 지그재그로 줄을 서서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다.

연탄을 들 때 생각보다 무거워서 놀랐다. 왔다갔다 연탄을 나르는데 아무리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았다.

갑자기 열매쌤이 연탄 4개를 떨어트려서 깨져버렸다. 계속하다가 잠깐 쉬었다. 물도 마시고 얼굴도 닦고 쉬었다. 다시 생각할 땐 조금 다르게, 줄서서 안하고 연탄을 받아 혼자서 목적지까지 갔다 놓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인지 우리가 가장 빨리 끝내고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에는 아무도 없었다.

밥을 안 먹고 와서 간식을 빨리 먹고 싶었지만 다른 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다른 팀이 와서 간식을 먹는데 완전 맛있었다. 초코파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일하고 먹어서 더 맛이 있었던 것 같다.

연탄봉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재밌었고 우리 팀이 더 빨리 끝나 학교에 혼자 있어서 많이 심심했다

【김서하】

12월에 다시 만나요 !